

# 변화하는 학습환경 'e러닝 우리가 책임진다'

OnExp●●는 2,000여개에 이르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 정보를 온라인상에 연중무휴로 상시 제공하며, 전시 기업들의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가상 전시장이다. 특히 OnExp●●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국내 e러닝 온라인 콘텐츠와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2005 e러닝 OnExp●●'를 개최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사이버전시장 OnExp●●(www.onexp●●.or.kr) 입점을 소개하는 'OnExp●● Hot & Cool'을 연재한다. '2005 e러닝 OnExp●●' 참가 기업 중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을 탐방해, e러닝 시장의 현황과 사업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글\_오숙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원



피엔아이시스템 | <http://www.educh.com>

## 기업체 직원 대상 온-오프 결합된 외국어 교육의 선두주자

**전** 문가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꾸준한 자기 관리와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 모 취업사이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의 33%는 직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기계발을 하고 있으며, 31%는 올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중 가장 인기가 있는 분야가 외국어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직장인들에게 학원 수강은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안이 온라인 학습이다. 다만 온라인 강좌는 '말하기 연습'이 어려워 외국어 학습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는데,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절히 활용해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한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다. 피엔아이시스템이 바로 그 기업이다.

피엔아이시스템은 자사가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 포털 사이트 에듀채널(www.educh.com)과 콜센터의 원어민 강사 전화 수업을 적절히 결합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업의 주력 상품은 기업체 직원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피엔아이시스템 신재중 대표는 "이 프로그램은 유명 강사들의 집중도



높은 온라인 강의와 원어민 전화 수업을 병행해, 기존 온라인 강의를 그대로 수강하면서 전화 수업을 통해 직접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강사와 대면할 기회가 없어 학습 진도나 출석 확인 등의 강제성이 부족해 학습 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피엔아이시스템의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전화 회화수업으로 진도를 점검하고 있어 자칫 단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게다가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보통 50분 수업동안 학생 1인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도 채 안되는 반면, 전화수업은 10~20분 동안 강사와 일대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 기업의 활용 목적이나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에 맞게 강의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기업주 입장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전화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1년도 채 안됐으나 이미 1만명 이상이 본 수업을 경험했으며, 현재 월 1,000명 이상이 전화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외국에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의 원어민 강사 인건비가 높아 프로그램의 가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 내용의 품질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웅진그룹, NHN, LG, 삼성 등 대기업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신재중 대표는 “지난해는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준비하는 시기였으며, 올해는 광고와 기업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시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외국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후발기업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고객의 요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차별화 된 콘텐츠 제공으로 기존 업체와 브랜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피엔아이시스템의 신 대표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철저한 강사관리, 차별화 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신재중\_ 피엔아이시스템 대표

## “우수한 콘텐츠로 승부한다.”

피엔아이시스템 콘텐츠 경쟁력은,

100여명의 전문 외국 강사진을 통한 전화영어이다.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전화로 진도를 점검하며, 회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이다. 또 대부분의 경쟁 기업들이 6개월이나 연간 단위로 수강신청을 받는데 비해 우리는 월단위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그만큼 콘텐츠에 자신이 있고, 재등록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불법 강사 문제가 크게 대두됐는데,

영어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를 고려할 때 불법 강사 문제를 뿌리 뽑기란 어려운 것으로 본다.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해당 업체들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영어 공부 노하우라면,

일단 시작해라. 그리고 꾸준해야 한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 및 철저한 학습 관리가 중요하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영어 공부의 적이다. 많이 읽고, 쓰고, 말하는 노하우 즉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학습하고, 노력하는 인재를 키워나가 신뢰받는 교육 전문 기업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피엔아이시스템의 앞날이 기대된다.

# 귀하의 영어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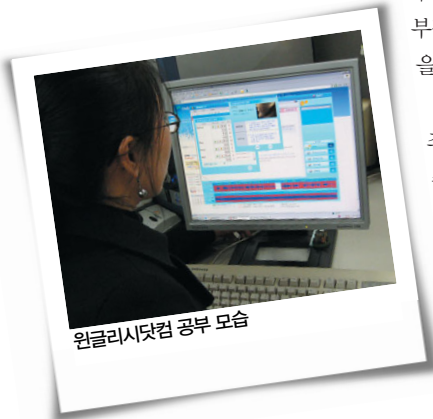
**국** 내 온라인 외국어 시장에서 20~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글리쉬닷컴([www.winglish.com](http://www.winglish.com))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좌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외국어 시장은 회화보다 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 대비 강좌가 더 인기가 많다. 회화가 안되는 영어실력이란 이빨 없는 호랑이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에서 취업이나 진급시에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추세는 온라인으로 회화는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원글리쉬닷컴에서 제공하는 '말하는 영어'는 음성인식 학습 솔루션을 이용한 온라인 회화 학습 콘텐츠이다. 표준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2명의 원어민 음성과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비교분석 함으로써 발음 및 억양, 시간, 강세 교정에 효과가 좋다. 원어민의 발음과 자신의 것을 비교한 즉시, 수치적으로 분석돼 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승부욕을 맞출 수 있다. 재미와 학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획된 학습 콘텐츠인 것이다. 하루 20문장씩 따라하며 발음을 교정

하고 문장을 외우다 보면 어느새 부쩍 늘어 있는 자신의 영어 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원글리쉬닷컴의 우수한 콘텐츠는 장인정신에 입각한다. "강좌 수강 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외국어 실력 향상을 강좌 제작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명신 대표는 고객의 눈길을 끌기 위해 학습내용과 관계 없는 흥미성 콘텐츠를 넣거나 예쁘게만 포장하기 보다



는 강좌 내용이 다소 딱딱하더라도 제대로 된 학습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비해 콘텐츠 개발비가 높다고. 덕분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교육콘텐츠 부분평가에서 3년 연속 전문가 선정 최우수 교육 사이트 상을 수상했다. 물론 학습자들의 수강 만족도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원글리쉬닷컴의 이명신 대표는 사원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며 직원중심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 순이익의 25%를 사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회사 규정도 이런 경영철학에 의한 것이다. '윈포인트'라는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실적 및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일정 수준의 포인트가 채워지면 포인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직원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원글리쉬닷컴은 콘텐츠 개발에만 힘써왔던 그동안의 경영방식과는 달리 그동안 미뤄왔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영어에 있어서는 각종 시험을 위한 강좌, 회화 학습을 위한 신개념 강좌들로 진용을 갖추고 있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의 준비는 다 갖춰진 셈이다.

이명신\_원글리쉬닷컴 대표

## “강좌 체험 제공해 네티즌 인기”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콘텐츠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영어회화는 학원에서 외국인과 말해야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만 받을 수 있다면 온라인 교육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글리쉬닷컴만의 홍보 전략이 있다면?

원글리쉬닷컴의 콘텐츠를 한 번 체험해본 사람은 지속적인 고객이 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가 있다. 그 만큼 콘텐츠의 내용이 우수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홍보도 잠재고객에게 원글리쉬닷컴 강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객으로 유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외국어 학습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원글리쉬닷컴 강좌는 의도적으로 매일 매일 일정량의 콘텐츠를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또 학습이 끝나면 평가를 실시해 학습자에게 맞는 다음 강좌를 추천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놀이를 통해 배우는 음악, 에듀테인먼트 기업



PC와 디지털 겸용, PC전용의 두 가지 모델이 있으며, 디지털 겸용 iPiano에는 4가지 음색의 음원, 스피커 및 이어폰잭, 메트로놈 기능이 내장돼 있고 충전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연주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Piano로 연주하는 모습

김상헌 대표이사는 “인비넷의 차별성과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동해 사

용함으로써 쌍방향 교육이 가능한 것”이라며, “놀이와 학습을 접목한 에듀테인먼트라는 교육 방법 즉, 플래시 애니메이션, 게임 등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공부하게 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해 원리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함께 구성한 것이 사용자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 같다”며 성공비결을 설명했다.

그러나 e러닝 시장에서 에듀테인먼트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분야이고 놀이와 교육의 결합이라는 소재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사업을 운영하는데 나름의 고충도 있다고 한다. 김상헌 대표이사는 “국·영·수 등 일반과목의 학습에 비해 예능 교육 시장 규모는 분명 좁고 제약이 많아 온라인교육, 특히 에듀테인먼트 분야는 교육의 효과를 소비자 부모님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장벽이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를 검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학** 습(education)과 놀이(entertainment)가 결합된 의미의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라는 신조어가 있다. 에듀테인먼트란 지루하지만 한 학습에 놀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쉽고 재미있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변화가 빠르고 즐겁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신세대 취향에 딱 들어맞는 단어다. 인비넷(<http://www.inbenet.com>)은 이와 같은 에듀테인먼트를 모토로 e러닝 분야에 교육과 놀이를 혼합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문화 벤처기업이다.

최근 대부분의 e러닝 사이트들이 수능, 한자, 수학, 영어 등 위주의 입시나 선행학습 위주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비넷은 ‘재미있는 교육’을 모토로 하이키디([www.hikiddy.com](http://www.hikiddy.com))와 피아피([www.piapi.com](http://www.piapi.com))에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PC피아노인 iPiano와 연동해 쉽고 재미있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아이소리와 그림 그리기, 그림일기 쓰기, 만화그리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주 이용자 층은 만3세부터 13세가 가장 많지만 20대 매니아 등 두터운 이용자 층을 확보하고 있다.

인비넷의 주력제품인 iPiano는 기존의 피아노와는 180도 다른 개념이다. iPiano는 컴퓨터나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디지털피아노 키보드로,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하거나 휴대할 수도 있다. 4옥타브 49건반의 컴팩트한 디자인이지만 옥타브 ‘up’ 또는 ‘down’ 버튼으로 88건반 이상의 음역을 사용할 수 있어 기존 피아노 못잖은 음역을 자랑한다. 또 USB를 이용해 간편하게 컴퓨터와 연결되며, 제공되는 전용 연주프로그램을 통해 400여 가지의 음색과 작곡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즐길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한 음악 학습이나 연주, 연주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 등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김상헌\_인비넷 대표

## “온라인 달는 곳이면 예능교육 가능토록”

인비넷만의 홍보전략이라면,

학교 유치원 등 단체와 그룹 교육 시장에 콘텐츠를 공급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전시 등의 기회를 살려 인비넷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갈 계획이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은,

문화 예술 교육은 창의성과 정서 교육 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비넷은 앞으로 예능 교육에 소외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온라인이 달는 곳이라면 누구라도 예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지화 작업으로 중국 진출 기업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시대 동영상 저작·관리의 파워브랜드 MAXMEDIA로 각광



**최** 근 e러닝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강의의 단순함을 없애고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데, 이중 단연 돋보이는 기업 중의 하나가 리얼타임테크(www.realtimetech.co.kr)다.

2000년 대학 연구실에 설립된 리얼타임테크는 메인 메모리 기반 DBMS인 KAIROS(카이로스)와 동영상 콘텐츠 저작·서비스 솔루션 MAXMEDIA(맥스미디어)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e러닝 인터넷 강의를 위한 저작툴인 MAXMEDIA는 강의 내용의 녹화와 편집 지원 솔루션인 'Producer'와 웹기반의 동영상 콘텐츠 관리 및 서비스 솔루션 'Manager', 자동 장면 검출을 이용한 동영상 라이브러리 구축 솔루션인 'Indexer' 제품군을 바탕으로, 인터넷 강의에 필요한 다양한 기본 기능은 물론 전자철판기능, 편집·검색기능으로 무장해 e러닝 콘텐츠 제작자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MAXMEDIA Producer는 강사 화면, 스크린, 음성을 모두 하나의 동영상으로 녹화할 뿐 아니라 편집시 목차 단위로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가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타블렛 장치와 호환되는 전자철판 기능을 사용해 강의나 세미나 발표를 하면서 스크린 위에 판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보조 도구로도 활용 가능하다.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인 MAXMEDIA Manager는 MAXMEDIA Producer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웹상에서 사용자 및 콘텐츠 관리, 권한제어, 각종 통계,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이 제품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e러닝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MAXMEDIA는 2004년 출시돼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과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등의 연구소 등 주요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2004년 10월, 일본 최대의 교육 기자재 및 솔루션 판매 기업인 우찌다양행과 MAXMEDIA Producer와 MAXMEDIA Manager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수많은 솔루션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에 성공한 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리얼타임테크의 기술력을 보여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진성일 리얼타임테크 대표는 "뛰어난 기술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매진 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성공비결을 말하며, "향후 MAXMEDIA는 e러닝과 디지털아카이빙 솔루션뿐만 아니라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의 다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진출을 계기로 제품의 편리성과 우수성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릴 중국, 유럽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수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국내 e러닝 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리얼타임테크가 2005년에도 이러한 노력이 큰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한다.



진성일\_리얼타임테크 대표

## e러닝 콘텐츠 제작·보급 간편해 '인기'

MAXMEDIA의 특징은 무엇인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인 e러닝 강사들은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기존 저작도구로 제작한 콘텐츠의 편집 과정을 숙지하는 것에도 곤혹스러워 한다. MAXMEDIA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동영상 기반이라 누구나 손쉽게 간편하게 e러닝 콘텐츠를 제작·편집하고 보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 추진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품의 특성상 MAXMEDIA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구매 인식이 부족한 국내 풍토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 다각적인 마케팅 정책을 통해 MAXMEDIA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